

불자 세상보기

위안부 할머니들의 끝나지 않은 전쟁



오경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 타결시켰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우선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지원할 것이며, 기시다 외상은 약 10억 엔(한국 돈으로 약 9% 6,980만 원 가량) 정도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가 일본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해결되었을

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公館)의 안경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 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날인 12월 29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정신대대책협의회에 피해자할머니들을 찾아갔을 때다. 이용수 할머니가 임 차관에게 "왜 우리 두 번 죽이러 왔어요? 당신이 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가슴이 아닌 뼈에 새겨야 할 말들이다. 피해자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고 국격(國格)의 수준에서 생각해야 할 말이다. 이 대목에서부터 한국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나 버린 것이다. 할머니들은 한국정부가 협상타결 이전에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정식사과, 그리고 법적 배상이 이 오랜 진실을 위한 전쟁을 종식시키고 한을 풀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녀상은 국민들이 한푼 한푼 모아서 조성한 '역사의 표시' 라면서 이전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1월 30일 오미우리 신문은 "소녀상이 이전이 일본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한국정부가 위무장관회담에 앞서 내부적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소녀상 철거에 집착을 보인 이유는 소녀상들이 일본의 어두운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줘 국제적으로 일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합의문에도 없었고, 일본 외무상이 먼저 꺼내지도 않은 말을 우리 외교부 장관이 먼저 꺼냈다고 한 것은 사전에 거론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화의 기술과 협상의 순서를 다시 학습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할머니들은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합의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무지함과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다. 정말로 이 정부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1995년 8월 15일 종전 50주년 담화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과하고 강한 반성을 표명했던 당시 무라야마 도미미치(村山富市) 총리보다도 못하지 않은가. 그는 이번 협상에서 아베총리가 직접한 일 국민 앞에 나서지 않고 총리 명의의 사죄문을 위무상에게 대독시킨 뒤 자기는 나중에 전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죄한 점을 꾸짖었다고 한다. 지난 1월 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을 직접 만들고, 일본이 최근 한 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지원금 10억 엔(약 97억원)을 받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방해만 될 뿐이라는 상징적 선언이기도 하다. 일본은 2월 15일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아야 한동안 어찌던 아주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는 반복되는 역사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차라리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社說

'미생' 비상개혁 재조명 통해 '완생' 으로

1983년 한국불교계에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다. 본사 주지 임명을 두고 스님들 간의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비화됐다. 1983년 9월 조계사 승려대회 후 소장 스님들과 청년제자운동가들은 당시 중정인 성철 스님 교시를 받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비상중단을 꾸렸다. 우리가 흔히 아는 83년 중단비상조치다. 당시 비상중단은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파격적인 여러 정책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본사 폐지 및 도심지에 교구 신설, 상·하원 입법기관 구성 및 재가자 입회, 사찰재산관리 공영화, 재가 전법사 제도 도입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급진적 개혁은 당시에 대중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으며 이내 사라졌다. 33년이 지난 지금, 비상중단 개혁을 이끈 스님들과 재가 불자들이 당시 개혁안에 대한 재조명에 팔을 걷어 부쳤다. 단체의 이름은 비상중단개혁총책연구모임이라 불렀다. 이 모

임은 2월 2일 서울 조계사 인근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총책 재조명사업에 대한 취지와 계획을 밝혔다. 비상중단 1년간의 활동은 결국 미완의 개혁이 됐지만 현재와 94년 개혁에 분명 일정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당시에 발의된 정책은 현재에도 유용한 것들이 많은 만큼 올바른 재조명을 한다면 불교 쇄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문으로 추대된 성문 스님은 "당시 전법사 제도를 두어 스님을 보좌하는가 하면 시대 흐름에 맞춰 불교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선 보였다. 이때 입안한 여러 정책이 정착했다면 현재 한국불교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짧게 끝난 개혁 움직임이었지만 이후 불교 개혁의 청사진을 남겼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늦은만큼 제대로 재조명돼 시간을 뛰어넘어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 하길 바란다.

'IJBTC' 동국대 이관서 상생을 보다

국내 유일한 영문 불교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이하 IJBTC)>의 발행처가 동국대로 이관된다. 그간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에서 발행되었지만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크게 마음을 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2002년 창립된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영문 불교학술지를 육성하기 위해 <IJBTC>를 매년 2회씩 발간해왔다. 2002년 2월 창간된 <IJBTC>는 국내 유일의 영문 불교학술지로 현재까지 25집이 발간됐으며, 2010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매회 300부를 발행해 해외 학술기관과 대학 도서관에 배포되며, 하버드대, 예일대, 콜럼비아대 등은 정기 구독을 하고 있다.

그간 <IJBTC> 발행에는 송석구 학회장(동국대 前 총장)과 최근 정년퇴임한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의 역할이 컸다. 누구 하나 지원하지 않는 영문학술지를 한국불교학의 세계화를 위해 화주를 하고 사재를 출연했으며, 시간을 쪼개 원고 심의, 편집에 매달렸다.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가 발행 학술지 <IJBTC>의 발행처를 동국대로 이관한 것은 재정 안정화와 함께 전문 편집인 양성, 정기적인 국제 학술대회 등을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를 받아들인 동국대도 <IJBTC>를 A&HCI 등재하는 등 국제적 명성의 유수의 영문 불교 학술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자신이 애착을 가졌던 것을 남에게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한국불교학의 발전을 위해 내린 통 큰 결정은 상생을 위한 것이다. <IJBTC>의 발전을 기대한다.

발언대

현응·수불 스님의 법석을 기대한다



범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생의 길에서 석가모니부처님이나 예수그리스도와 같은 다수의 성자들이 내 주변과 사회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위대한 선지식에 대한 기대는 희망일 뿐이다.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길이 자정이고 혁신이며 강도 높은 정진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94년도 개혁불사 시 종단이 개혁다운 개혁을 해야만 불자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로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선지식의 출현이 가능하다고 누차 주장한 바 있다. 불자들은 일상에서 자비구현 또는 구세대버리는 말을 쉽게 사용한다. 그러나 이 문구들의 의미에는 엄두조차 내기 힘든 깊이와 무게감이 내재해 있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흔히 사회경제적으로나 정신적,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내가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자비라고 여긴다. 이해와 더불어서 자비의 완성자는 부처님이시며, 범부는 신심과 수행, 깨달음에 대한 정도에 따라 자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수많은 개개인들의 삶이 얽히고설켜 세상사를 이룬다. 자비는 그러한 인간들의 세상사 속에서 실현되고 구현된다. 그런데 여기 금강경의 한 대목을 보기로 하자. "하이고(何以故) 수보리(須菩提) 여 아석위가리왕(如我昔爲歌利王) 환절신체(割截身體) 아이이시(我於爾時) 무아상(無我相) 무인상(無人相) 무중생상(無衆生相) 무수자상(無壽者相) /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수보리아,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몸을 잘기갈기 찢길 적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필자는 위에 인용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용한다. 구도자라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토록 진인한 일이 발생하게 된 현상

의 배경과 거대 사회구조 모두에까지 당당히 맞서서 세상을 제도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구도자인 너(나) 자신부터 '상(相)'을 버리고 스스로 대 자유인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필자는 평소 경험하지 못하였던 극악한 경계에 맞닥뜨렸을 때 현응 스님의 견해처럼 과연 불교를 "잘 이해"하는 선에서 흔들림 없는 무량한 자비행이 가능할까, 그러한 경계에서 구세대버리로서의 손색 없는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수불 스님은 1월 17일자 <불교신문>을 통해 "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종단 차원의 공식적인 논쟁이면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비공식적인 자리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수불 스님은 종단의 고위급 교역직을 맡고 계시다. 교육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응 스님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하기에 두 분의 토론 자리는 수불 스님이나 현응 스님, 당사자 두 분 가운데 아무라도 한 분이 나서서 마련한다고 토론의 격이 떨어진다거나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그것을 두고 '비공식적'이라고 폄하할 불자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하연간 수불 스님께서 '종단 차원'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니, 조계총 총무원이나 교무원이 주최하고 종단 산하기구가 주관하여 여러 기관, 단체의 협찬 속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여백성이 구축하고도 남는다. 일반 불자도 아닌 출가자가 진리를 논하고 자비를 행함에 있어서 공식 비공식을 차별하고 장소와 격식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권위와 격식은 어쩌면 군더더기에 불과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종단의 주체적이고 빠른 주도를 기대한다. 시간을 끌거나 외면해서 될 일이 아니다. 범을 논하는 자리보다 더 자비롭고 자색광명이 방광하는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매순간 삶의 고통이 연속된 우리 사회와, 크나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 방향을 잃어버린 한국불교 전반에 무엇이 이해와 자비의 완성에 이르는 길인지, 걸출한 두 분 스님께서 대화해서 대중들의 갈등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환
(우)03150 서울특별시 중구 우정국로 45-1,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hyunbulshop.com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살이 살꿈 해몽 대사전
꿈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층 심리와 놀라운 예지력! 이런 꿈을 꾸면 이런일이 일어 난다.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 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 모든것!
평소에 꾸는 꿈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올바르게 해몽하여 바른 인생의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인간의 평균 수명을 75세로 했을 때 그 중 25년은 잠을 자는 시간으로 보내고, 25년 중의 10년은 또 꿈을 꾸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한다.
짧은 인생 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은 간단히 무시해 버리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아깝고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꿈풀이 전문가가 있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그 신비한 꿈의 올바른 해석에 관한 모든 비밀을 이 책을 통하여 속 시원히 밝혀 보았다.
■ 金允中 지음 / 신국판 / 644쪽 / 정가 28,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신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심리로 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응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술이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정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책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자 · 신국판 · 양정본 · 값 50,000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 x 60팩 (1BOX)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